



담당부서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     |           |
|--------|-----|-----------|
| 자활지원과장 | 김종석 | 2133-7480 |
| 자활정책팀장 | 배기선 | 2133-7482 |
| 담당자    | 나종택 | 2133-7483 |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8매

## 서울시 올해 2,226명 노숙인 일자리 지원.. 민간취업 확대

Seoul offers jobs to the 2,226 homeless in 2016, increasing positions at the private sector

- 「2016년 노숙인 일자리 종합대책」 공공일자리 위주→민간연계일자리로 전환
- 호텔, 건설사 등 민간기업 300여 개, 1,150명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 고령·장애 노숙인 근로능력 맞는 공공일자리 890명 지원, 민간취업도 적극 연계
- 공동작업장 12개→14개, 자활작업장 4개→6개 확대로 자활·자립 지원

- 서울시가 노숙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300여 개 기업, 1,150명으로 확대한다. 작년보다 기업 수는 56개('15년 244개), 대상 노숙인은 237명('15년 913명) 확대된 규모로, 시는 호텔, 건설사 등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공공일자리도 올해 890명에게 지원된다. 고령과 장애 등으로 민간 기업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우선 지원되며 청소, 근로 능력에 따라 급식보조 등 가벼운 업무부터 공공시설물 청소, 재활용, 직업 재활시설 도우미 등 민간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업무까지 다양하다.
-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노숙인 일자리 종합대책」을 3일(목)

발표, 올해 총 81억 원의 예산을 투입, 2,226명의 노숙인에게 개인별 근로 능력과 욕구에 따라 민간·공공일자리를 연계해 자활과 자립,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자활시설 등에 거주하는 노숙인 중 근로활동에 참여한 노숙인은 '14년 40%(3,952명 중 1,617명)에서 '15년 말 기준 60%(3,708명 중 2,200명)로 늘어 노숙인들의 근로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분석했다.
  - '15년 말 기준 서울시내 노숙인은 3,708명으로 이중 2,200여 명(▲민간일자리 920여 명 ▲공공일자리 880여 명 ▲공동작업장 400명)이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3,340여 명은 시설에서, 360여 명은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공공일자리 위주의 지원을 민간과 연계한 일자리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올해도 민간 연계형 일자리를 237명 확대해 실질적인 자활을 돕는 동시에 3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민간일자리 연계 : '14년 640명 → '15년 913명 → '16년 1,150명(목표)
  
- '2016년 노숙인 일자리 종합대책'은 ①민간일자리(1,150명) ②공공 일자리(890명) ③노숙인 공동작업장(450명) ④쪽방 자활작업장(60명), 4개 분야로 추진된다.

- 첫째, 민간일자리는 리조트, 호텔, 건설사 등 대형 민간기업과의 협력관계를 300개소로 확대하고, 작년 7월 문을 연 ‘노숙인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3,500명(‘15년 2,250명)의 인력풀을 구축해 민간 기업 취업이 적재적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 민간기업 실무진들로 구성된 ‘일자리 민간 위원회(가칭)’를 3월 중 구성, 분기별 회의를 통해 노숙인의 민간기업 고용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6월 중에는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노숙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둘째, 공공일자리는 근로능력에 따라 ‘특별자활사업’(682명)과 ‘일자리 갖기 사업’(212명), 두 가지로 지원한다.
- ▲ ‘특별자활사업’은 장애인, 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숙인에게 보호시설 및 주변 청소, 급식보조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일자리 갖기 사업’은 근로능력을 갖춘 노숙인에게 지원하는 민간 취업 전 단계의 사업으로, 공원 청소, 장애인 작업장 보조, 사무보조 등 업무를 제공한다.
  - 시는 공공일자리 참여자 중 근로의지가 강한 노숙인은 민간기업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셋째, 공동작업장은 올해 2개소를 추가해 서울시내 총 14개소에서 450여 명의 노숙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쇼핑백 접기, 양초 제작, 전기제품 포장, 장난감 조립 등 단순노무

형태의 가내수공업 위주로 이뤄진다.

○ 노숙인 공동작업장은 지난 '14년 7월 서울역 응급대피소 등에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 참여 노숙인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5년에는 거리노숙인 외에도 시설 등 총 12개소로 확대, 약 400여 명의 노숙인이 참여했다.

□ 특히 올해는 노숙인들에게 단순히 일거리뿐만 아니라 영화관람, 미술 치료, 인문학 강의 등 재미요소를 가미한 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해 이들의 근로 참여율을 높이고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 넷째, 기업후원과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쪽방촌 자활작업장은 올해 시내 5개 쪽방 밀집지역 중 작업장이 없는 지역(돈의, 영등포, 창신)에 신규 2개소를 확충해 총 6개소로 확대, 쪽방촌 주민들의 관계망 형성과 자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쪽방촌 자활작업장은 현재 남대문 쪽방촌에 3개소, 동자동 쪽방촌에 1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며, 손두부, 꽃·화분 제품, 밀반찬, 양말 인형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파산, 건강상 이유 등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진 노숙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며, 이들이 다시 우리사의 한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당부한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노숙인이 사회에 복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수립한 이번 종합대책을 민간기업, 시민과 함께 빈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민간일자리 취업사례〉

- 민간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노숙인 이경원(가명)씨는 수도권 소재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유학을 다녀와 결혼하여 평탄한 생활을 유지하던 중 자녀가 학교폭력에 휘말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하던 사업까지 실패하고, 시댁으로부터 자녀 및 사업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집을 나오게 되었다. 현금이 없어 2~3일간 굶는 일이 다반사였다. 버스정류장이나 마트앞에서 버려진 빵을 주워 먹으며 주거없이 거리노숙생활을 하게 되었다. 주변으로부터 미친여자 취급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던가?

이렇게 2년을 보내다가 시설직원의 도움으로 여성 노숙인 시설인 화엄동산에 입소하게 되었고, 여기서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직업상담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 한 일은 희망푸드협동조합으로 여기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 만나 서로 위로하며 삶의 의지를 다지던 중 뜻밖의 행운이 왔다.

작년 12월에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의 소개로 A호텔에 미화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전보다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급여도 많이 오르게 되었다.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또한 사회에 나아갈 힘찬 새 출발 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경원(가명)씨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서울시와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화엄동산, A호텔에 감사하다. 나 외에도 일할

수 있는 노숙인에게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라며,  
“서울역과 을지로입구역 항상 같은 계단에 앉아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노숙인들을 보며 나도 그들처럼 춥고 배고팠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배고픈 그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 〈공동작업장 참여노숙인 자활사례〉

□ 금년 33세인 김희영(가명)씨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살다가 중학생때부터 고도비만으로 친구들의 놀림속에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으며, 어디에도 정착을 못하고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러 쉼터에 입·퇴소를 반복하며 우울증세가 심해졌다. 그러던 중 한 여성쉼터에 입소하여 자활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성공동작업장인 일·문화카페를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여 눈치도 보였으나, 사회복지사인 김혜선 매니저의 한결같은 미소와 가르침으로 익숙해지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자신에게는 거친 외모와는 달리 주변 동료에게 친절하고 솔선수범하며 힘이 있어 일하는데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요양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으며 지역 사회로 나가 독립하게 되었다.

김희영씨는 “자포자기만 안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왜 한 때 스스로를 포기했었는 지 후회가 된다. 나를 도와준 서울시와 일·문화카페 공동작업장이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나 같은 노숙인들을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 《참고사진》

### ○ 공동작업장 일·문화카페



### ○ 공동작업장 영등포보현의집



○ 일자리지원센터 상담모습



○ 일자리지원센터 상담모습

